

대선 6개월 앞... 광주·전남 민심

민주당 후보론 불안해... 지역 민심은 "안철수"

광주일보 제18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오는 12월에 치러질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차기 대선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이 적합도와 지지도에서 다른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원장의 대선 출마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가능할 수 없고,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대선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안 갯속'인 만큼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까지 광주·전남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전체 후보 지지도=안철수 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과 범야권 및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한 여야 7명의 대선 주자간 지지율에서 안 원장이 19세·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30%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50대에서는 39.5%의 지지율을 보여 중도 세력의 지지층이 두터운 것으로 분석됐다.

안 원장의 뒤를 쫓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19세와 20대에서 34.4%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며, 안 원장이 19세·20대에서 얻은 지지율(31.8%)을 앞섰다. 문 의원은 젊은 층에

서 지지율이 높은 반면, 50대(16.9%), 60세 이상(5.7%)에서는 낮은 차기 대선 후보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전 연령층에서 10%대의 지지율을 보였고, 60세 이상(19.8%)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고문은 40대 이상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60세 이상에서 20.2%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지역별로는 안 원장의 경우 광주(37.0%) 지지율이 전남(29.6%)에 비해 더 높았고, 문 의원도 전남(20.4%)보다는 광주(21.8%)에서 보다 높았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남에서 17.4%, 손학규 고문은 광주 12.4%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안철수 원장이 31.7%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리며 선두를 달렸다. 특히 현재 무소속인 안 원장은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 문재인(28.0%) 의원과 손학규(16.5%) 고문 보다 더 높은 31.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40.4%), 안철수(30.8%), 정동영(11.5%) 순으로 나타났다.

안 원장은 30대(39.0%)와 50대(33.9%)에서 선두를, 문 의원은 19세·20대(36.4%)와 40대(30.4%)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60대에

서 손 고문은 25.1%로, 안 원장과 함께 1위를 차지했다.

안 원장은 전남(26.2%)보다 광주(37.2%)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문 의원은 전남(25.8%)에서 광주(24.8%) 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손 고문은 광주(13.8%)와 전남(15.4%)에서 모두 3위를 기록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에서 11.6%로 4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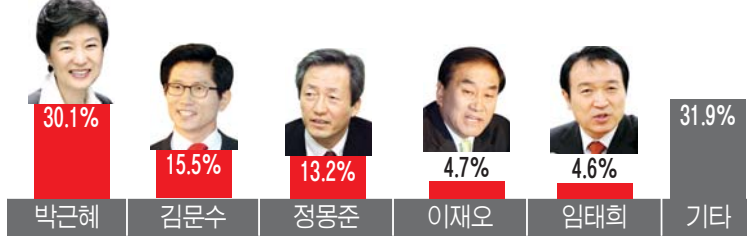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안 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32.6%로, 손학규 고문(19.1%)을 13.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19세·20대(53.2%), 30대(38.0%), 40대(41.5%), 50대(27.1%)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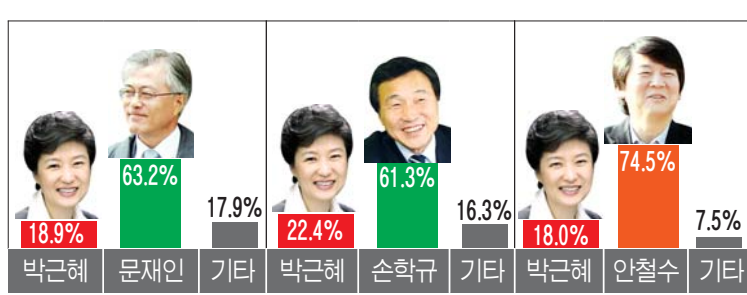
60대 이상에서는 손 고문이 30.0%로 선두를 달렸다. 지역별로는 문 의원이 광주(33.4%)와 전남(31.8%)에서 모두 선두를 달렸고, 손 고문은 광주 2위를 달렸다.

정동영 고문은 광주(12.4%)에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전남(11.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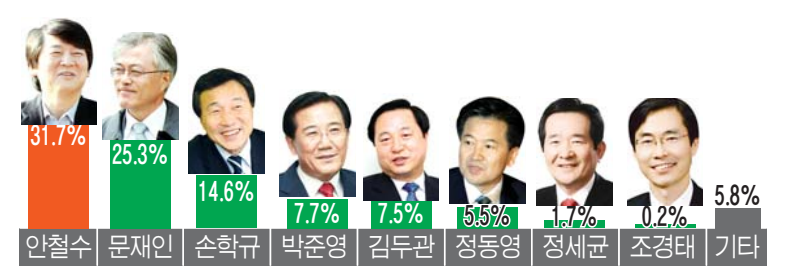
새누리당 후보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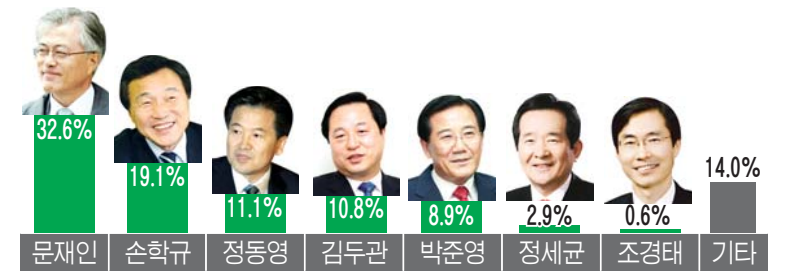
대통령선거 양자 가상대결



범야권 후보적합도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지도



박근혜와 양자대결 야권후보 모두 이겨 새누리 후보 적합도 박근혜 압도적 1위

1%)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손 고문이 30.0%로 선두를 달렸다. 지역별로는 문 의원이 광주(33.4%)와 전남(31.8%)에서 모두 선두를 달렸고, 손 고문은 광주 2위를 달렸다.

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7.8%, 10.5%의 지지도를 받으며, 5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36.9%), 손학규(21.1%), 정동영(11.0%), 김두관(10.9%), 박준영(7.3%), 정세균(3.4%), 조경태(0.6%) 순으로 지지를 받았고,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46.2%), 김두관(19.2%), 박준영(13.5%) 순이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적합도=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20~30%대 고른 지지를 받으며 30.1%로, 경쟁후보를 따돌렸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무려 73.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고전할 것으로 전망됐던 지난 4·11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과반 의석을 남기는 '총선 승리'를 이뤄낸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문수(15.5%), 정몽준(13.2%), 이재오(4.7%), 임태희(4.6%) 순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5.0%, 16.0%의 지지율을 얻었고,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전 연령층에서 10%대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양자 대결=여권 대선주자군 중 1위를 차지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범야권의 선두권 후보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범야권 후보들이 모두 앞섰다.

박 전 위원장과 안철수 원장이 여야 후보로 나서는 가상 대결에서는 안 원장이 74.5%, 박 전 위원장이 18.0%. 박 전 위원장과 문재인 의원의 가상 대결에서는 문 의원이 63.2%, 박 전 위원장이 18.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또 박 전 위원장과 손학규 고문의 가상 대결에선 손 고문이 61.3%, 박 의원은 22.4%의 지지를 얻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민주 후보와 단일화 해야" 43%

30%는 "민주 입당 후 경선 참여"

30대 '단일화'가 '경선' 2배 넘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안 원장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거나 민주당에 입당한 뒤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이 향후 어떤 선택을 통해 대선 후보로 출마할지 주목된다.

안 원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출마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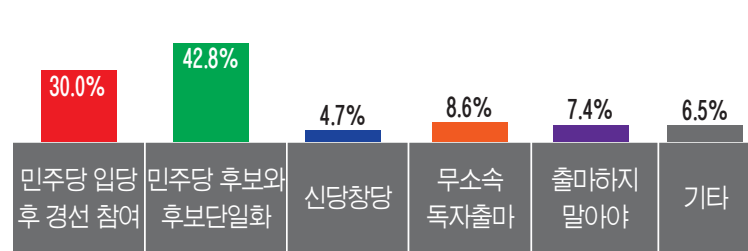
에 응답자의 42.8%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을 택했다. 이어 30.0%는 '민주당 입당 후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또한 '무소속 독자 출마'(8.6%), '불출마'(7.4%), '신당 창당'(4.7%) 등의 응답도 나왔다. 기타 6.5%였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특히 30대의 경우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54.1%)을 '민주당

안철수교수 대선 출마 방식



입당 후 경선 참여 방식'(21.4%) 보다 더 선호했다.

6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30.8%) 보다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42.9%)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응답이 광주가 45.8%로, 전남(39.8%)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는 전남이 30.8%로, 광주(29.2%) 보다 높았

다. 성별로는 남성의 48.3%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호했고, 30.0%는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로 답했다. 여성 또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37.5%)에 대한 응답이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37.5%) 응답 보다 높았다. 한편,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23.7%로 가장 높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0대 72% "그래도 야권연대"

19세·20대 "야권연대 반대" 비중 높아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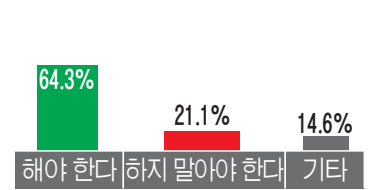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3%가 '해야 한다'고 답했고, 21.1%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기타 답변은 14.6%였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야권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50대(72.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30대(70.7%)·40대(65.4%) 순이었다.

반면, '야권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는 19세와 20대(29.9%), 30대(22.4%)의 비중이 높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통합당(73.4%)과 통합진보당(71.2%), 무

야권연대



당층(46.3%) 등에서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은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야권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44.3%)'는 의견이 '해야 한다(29.9%)'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합진보 지지율 5.2%로 '뚝'

4·11 총선 정당 지지도 비하면 3분의 1로 급락

민주당 67.2%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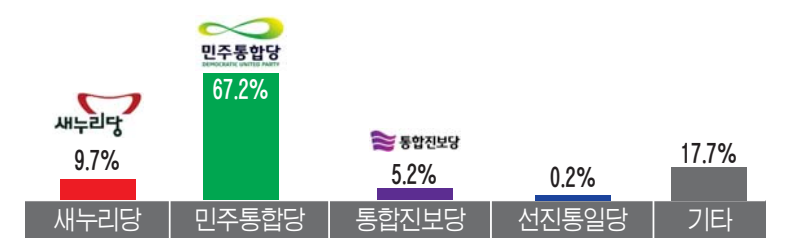
새누리 9.7%로 2위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과 폭력 사태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가 검찰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11 총선을 전후해 두 자릿수 지지율로,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이 이어 제2당의 역할을 해왔던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당내 사태로 한 자릿수로 추락하며 2위 자리를 새누리당에 내줬다.

조사결과 민주당은 67.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른 정당들을 앞섰다. 전 연령층에서 60%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얻었으며, 50대에서는 73.4%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7.4%, 전남이 67.0%였

정당지지도



다. 이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9.7%, 통합진보당 5.2%, 최근 당명을 바꾼 선진통일당(자유선진당)이 0.2%의 미미한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지지는 정당 없다'는 응답자 새누리당에 17.7%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4·11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정당지지도(광주 68.9%·전남 69.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광주 5.5%·전남 6.3%) 보다 상승해 10%에 육박했다. 새누리당은

60세 이상에서 15.0%, 40대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문제로 인해 내분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비례대표 정당지지도(광주 18.6%·전남 14.8%)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급락하며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4·11 총선을 전후해 실시됐던 광주·전남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11.6%로 민주통합당이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국민들 눈높이나 좀 맞출 일이다

유효 표본 광주·전남 500명 씩 무작위 추출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여론 조사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광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의뢰해 지난 6월15~16일 이틀간 실시했다.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올 5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유권자수 비례 무작위추출을 통해 ARS-RDD(무작위 임의 걸기 방식·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다.

유효 표본수는 광주와 전남 각각 500명으로 총 10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